

텅 빈 장바구니, 마포 시장서 채워요

입력 : 2017-01-09 21:10 | 수정 : 2017-01-10 00:35

설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 탓에 지친 주부들이 많다.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이 서민들을 달래주기 위해 싱싱한 해산물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축제를 연다.

9일 마포구에 따르면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새해맞이 해피박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리모델링해 더욱 깨끗해진 시장을 지역민에게 알리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축제 기간에는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13일 오후 2시에는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제철상품으로 채운 해피박스과 장바구니를 선물로 준다. 해피박스에는 킹크랩, 생대구, 조개모듬, 연어회, 새우, 미역 등 해산물과 채소 등을 담는다. 이튿날인 14일 오후 2시에는 개그맨 김종하씨의 진행으로 마포농수산물시장 2층 식당가 대표들이 참여하는 요리경연대회인 '마포요리대첩'이 열린다. 이어 3시에는 추첨을 통해 시민들에게 100개의 해피박스를 준다. 15일 오후 2시에는 노래자랑이 열린다. 1등 30만원 등 상금까지 걸려 노래에 자신 있는 시민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오후 3시에는 경품추첨, 마포시장 상품권을 준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전통시장 하면 불편함이 먼저 떠오르지만 최근에는 리모델링해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났다"면서 "시장 상인들이 불황 앞에 타격받지 않고 서민들이 생필품을 값싸게 살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